

조실 진제 스님

대담 = 위영란 편집국장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

동화사 금당선원 가행정진도량으로

“참된 안목의 선지식 나오도록 지도할 터”

것은 쉽지만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비밀히 전하는 향상일구(向上一求)를 통과해야 견성이고 사람의 눈을 안 흐립니다. 그런데 보살이나 처사나 스님이나 그 향상일구를 모르고 견성했다는 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향상일구 안목자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동안 거 방한록 결제법어에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라고 공안을 내렸습니다.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10년을 잡고 씨름하듯 일념삼매에 들어가 견성 하거든요. 옛날에는 도를 얻기 위해 여기에서 두문불출하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정선무장과 바른 수행으로 오도 송이 터져 나와야 한국불교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동화사에 기본선원이 설치된 지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은 해체 때 후학을 위한 교육장으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선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바른 중노릇 바른 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견성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기본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기본 교육이 없어서 승이 돼도 무엇이 승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원장스님이 역량을 충분히 갖춰, 질서를 정확히 잡고 교육 안거를 잡아 바르게 참선에 바르게 증명하는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게다가 주지 지성 스님이 기본선원을 위해 별도의 건축물 사를 세웠으니 일이 잘 추진될 것입니다. 3개월 틀고 앉았다고 견성성 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화사는 사적으로나 역사로 보나 총림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선종의 맥을 잇는 조계종단에서 총림은 어떤 형식적인 요건보다도 참된 안목을 가진 선지식이 후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화사는 한국의 주류 경허 선사 의 선택을 이으며, 일등 발심한 스님 30여명이 항상 모여 사시사철 수행하는 가행정진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총림으로서의 사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떨어져 있지만 울원이 있고, 강원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총림을 능가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총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여여부동 마음 증득해
생사 초탈토록 정진
지성스님 원력이 큰 힘

30여명 사시사철 정진
동화사 총림사격 충분

대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이 사시사철 해체 없는 가행정진도량으로 거듭난다. 결제와 해제의 틀마저 벗어나고자 하는 운수납자들의 용맹정진 지도는 금당선원 조실 진제 스님이 맡는다. 진제 스님은 하루의 쉼도 없이 각고정진을 이어갈 선객들에게 생사를 뛰어넘는 길을 제시하게 된다. 스님은 지난 동안 거 결제부터 동화사 조실제에 머물며 운수납자를 제정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선사들의 살림살이가 가행정진이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천하에 불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제 막 동안거 결제가 끝났습니다. 이번 율유년 동안 거 방한록에 종정 스님의 법어와 함께 스님의 결제법어가 실려 주님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처님의 깨달음 법문을 요약하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법신의 경지가 있고 여래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의 경지가 있어요. 법신 견성과 여래선을 안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대구봉축위원회 결성...4월15일 봉축탑 점등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 결성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정산, 천태종 대성사 총무 보광 스님 등 불교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봉축위원회 결성회의가 3월2일 대구 불교대학에서 열렸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봉축위원장으로서 하는 봉축위원회는 불교계 원로와 각 기관단체장이 증명법사와 고문으로 참여하고, 대구 사원주지 연합회장 법해,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법운, 천태종 종의회 의장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진산 정사 등 범 불교계 각 단체 대표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봉축행사를 1억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민과 함께 문화축제의 전형을 창출하며 자비의 실천이 되는 봉축행사를 봉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봉축탑 점등식을 4월 15일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에서 봉행하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봉축법요식, 거리제등행진으로 이어지는 연등축제는 4월 30일 두류야구장에서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두류공원에서 반월당까지의 제등행진이 끝난 후 반월당에서 남문시장 사이의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축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층 기대된다.

배지선 기자

연과 봉축법요식, 거리제등행진으로 이어지는 연등축제는 4월 30일 두류야구장에서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두류공원에서 반월당까지의 제등행진이 끝난 후 반월당에서 남문시장 사이의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축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어서 한층 기대된다.

그 외 지역 사찰별로 계획된 다양한 봉축행사가 소개됐다. 선덕여왕송모회 주관으로 열리는 선덕여왕송모제가 4월 12일 오전 10시 부인사에서 열리고, 4월 16일에는 대광명인불자회의 주관으로 명인불자들의 전국산행대회가 갖바위에서 개최된다. 대구경북불교교육연합회는 4월 17일 동구문화회관에서 찬불가 합창의 밤을 개최하며, 천태종 대성사가 5월 4일 봉축전야제를 갖고, 서구청, 동구청, 서부경찰서 등 각 기관단체들이 봉축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포항 불교·가톨릭 지도자 부정선거 감시운동 전개

포항 불교계와 가톨릭계 성직자들이 5·31 지방선거 감시자로 나섰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과 오천성당 문봉환 신부를 비롯한 포항 불교·가톨릭 성직자모임 스님과 신부 10여명은 2월 27일 포항 천주교대구교구 제4대리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과워풀 & 클린 포항을 위한 우리의 선언”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종교인의 자발적 희생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포항불교가톨릭 성직자 모임은 5·31 지방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종교편향적 지원을 금하며, 종교 편향적 정치선언으로 지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후보자 거부 운동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특정인을 후보자로 공천하는 정당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진각불교문화대학 개원

대한불교진각종 의림심인당(주교 의현) 부설 진각불교문화대학이 위덕대 불교학부 평생교육원과 협력으로 3월 20일 대구 건들바위 네거리 진각문화회관 7층에 문을 연다.

진각불교문화대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교리를 교육하고 진각종지를 알려 포교에 도움을 주기위해 진각종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불교대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교리, 가요교실, 명상·요가, 명리학, 단소, 서예등의 강좌가 개설되며, 1년간 1, 2학기로 나눠 총3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053)424-2693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고승초청법회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육불보전 낙성식을 기념해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고승초청법회를 갖는다. 대법당 부처님(준제관세음보살) 점안식이 봉행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는 해국 스님(석종사 금당선원장) 법문이 있고, 낙성식이 봉행되는 8일 오전 10시에는 성우 스님(불교 TV사장)이 오후 8시에는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위원장)이 법을 설할 예정이다. 또, 성파 스님(서운암 회주)은 13일(월) 오전 11시에, 지한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은 신입생입학식이 열리는 3월 16일 저녁 8시에 법문한다.

영남불교대학은 또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이 있는 3월 한달간 ‘수행과 포교는 하나다’는 주제로 정진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063)474-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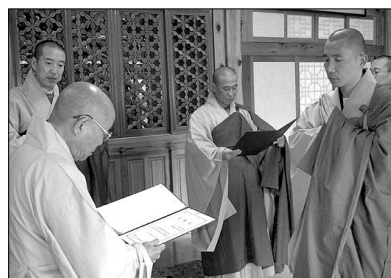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3-634-3429

“보존·전승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해인사, 경암 스님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



법전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있는 경암 스님(오른쪽).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은 3월 2일 퇴설당에서 2월 7일 비로자나불 복장 의식을 전통원형대로 재현한 경암(鏡峯) 스님에게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불보살성상 복장전문위원 위촉은 조계종단 내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로 한국불교문화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불보살성상의식이 연구 복원 계승 발전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법전 스님은 복장전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비로자나불복장 불상은 근래 50년사에 가장 적절히 재현된 복장의식이였다”고 치하하면서 “해인사가 중심이 되어 종단내 여타 사찰들에도 복장의식이 전통원형대로 복원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사바에도 최승미묘 정토원행의 거룩한 인연이시라!
'아미타정토 청정법음' 무상보리 대승의 서원 무량수광명 서방정토 무생법인 이룸이시라!
- 무량수여래를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정토 불교대학』강좌안내

절토강좌	교수진 소개	시간
●정토경론「무량수경종요」 ●정토경론「불화로 보는 정토세계」 ●정토원행「의심없고 영물하세」 ●정토신행「왕생록」·「왕생볼티」 ●정토행원「정토행자의 길」	박종린 연구원(동국역경원) 강소연 교수(홍익대 미대) 김지수 교수(전남대 법대) 스님, 박병규 변호사 전병룡 한의사(위강한의원)	매주 금요일 19:00 - 20:30 * 매일 개재순 강의진행 계획

제1기 6개월과정 - 원서접수 : 2.27(월) - 3.8(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 1매, 입학금(10만)

- 강좌개시 : 불기2550(06). 3. 10(금) 19:00

* 건봉사 만오(晩悟) 큰스님 초청 개강법회

* 아미타사 요일별 저녁 주요신행 소개 (24시간 개방 절토행자 절토법수행도량)

월·토 중국어회화 수 고성염불 목 불화그리기 강습 금 아미타정토불교대학 일 일요일회

오시는 길 - 전철 : 1, 3, 5호선 종로 3가역 7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버스 : (창덕궁 하차) 109, 151, 162, 171, 172, 272, 1012, 7025 비원길 창덕궁(비원)방향 우측노면
대각사 표지판 지나서 비원수퍼 옆 아미타사 ☎ 02)745-3351, 3352



나무아미타불 아미타사
南無阿彌陀佛 阿彌陀寺
"Namo Amita Buddha" Amita Monastery

서울시 종로구 외동동 69번지 (우)110-360 ☎ 02)745-3351, 3352 / 본사 : 강원도 망경사 033)374-8007, 9007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마이산의 전설과 문화, 그리고 역사
마이산 탐사 축담의 비밀과 그전신
마이산의 메아리
이 책은 저자의 수행담과 탐사와 탐군에 얽힌 전설과 역사, 축담의 비밀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마이산의 아름다움, 신비스러움 불가사의 함을 이책에 담았다. 마이산 탐군의 지킴이로서 그간 소중 전말과 분경, 소유권 등 탐사에서 그간 일어났던 무수한 법정에서의 소송을 책속에 진술하게 담았다. 또한 저자는 마이산탐사에서 태어나 조부인 이갑문 처사와 함께 지내며 조부가 탐을 쌓거나 수도하는 모습은 보아왔고 신비의 마이산에 돌담조성 과정도 그림으로 소장해 설명하고 있다.
| 신야출판사 | 값9,000원 | 전화 063)275-4000, 252-5633
이왕선(해명) 지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삼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